

# 8월 지육 시세는 3,900원/kg 예상

휴가철로 시작되는 8월은 서울보다는 지방에서 돼지고기 소비가 활성화 되는 시기이다.

8월 휴가철에는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로 도시는 공동화되는 반면 지방의 휴가를 보낼만한 산과 계곡과 바다는 수 많은 인파들로 꽉 들어 차 전국민의 대다수가 이때를 휴가로 보내면서 돼지고기 소비를 늘려 지방의 돼지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출하물량은 증가하지 않고 반대로 소비는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돼지고기 소비를 늘려 자연스럽게 돼지 가격이 7월 보다는 상승하게 된다.

올해도 똑 같은 상황이 다시 나타날 것인가?

현재까지의 모습으로는 금년 7월의 출하동향으로 볼 때 금년 8월의 예상은 예년과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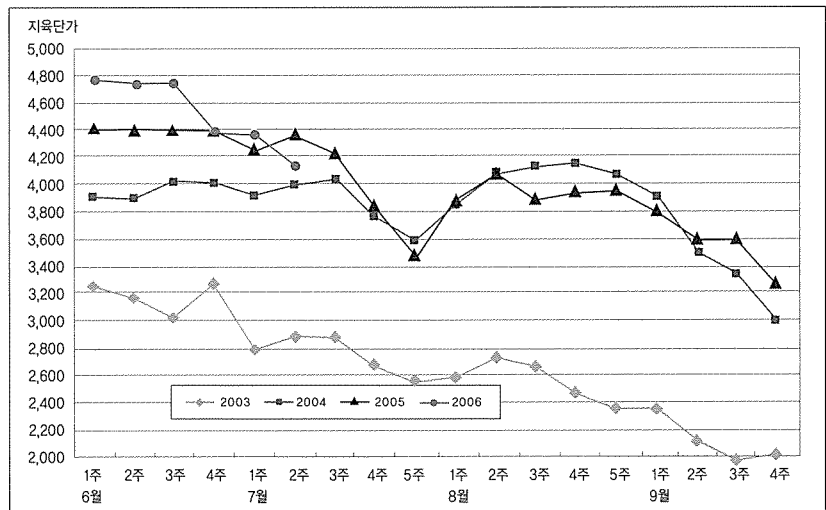
여기에 중요 변수는 수해와 함께 길어진 장마가 소비 증가 추세에 발목을 잡고 경기 하강과 소비 감소가 일어날 경우에는 돼지 가격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7월 3주차에 접어들면서 긴 장마와 수해 피해가 커지면서 소비량이 줄어들고 출하물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급락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추세에 학생들의 방학이 겹치지면서 학교 급식에 공급하던 수요까지 줄어 급락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돈가를 급락시킨 요인이 얼마나 줄어들든가에 따라서 8월의 돈가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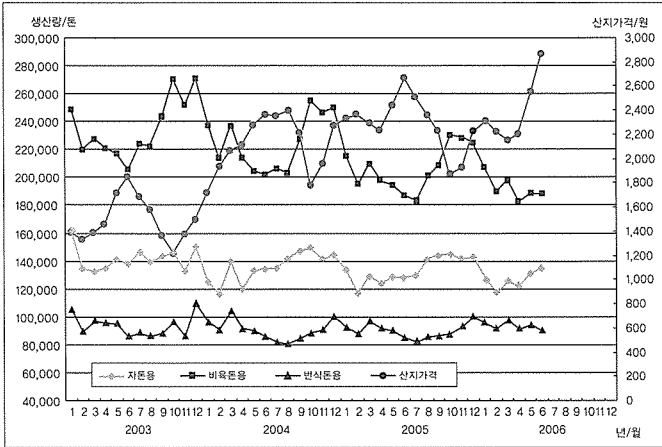
돈가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변수인 돼지 공급쪽에서는 출하두수는 7월과 비슷하거나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돼지고기 수입물량은 지난

<그래프 1> 전국 도매시장의 최근 4개년간 주간별 지육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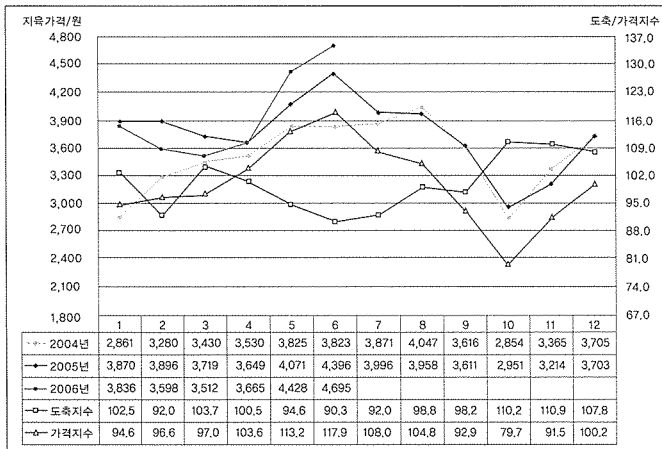


권혁만 팀장  
(주)선진한미음 모돈계열팀

<그래프 2> 최근 4개년간 월별 사료생산량의 변화와 둔가 동향



<그래프 3> 최근 3개년간의 월별 도축 및 가격지수의 월별 둔가 동향



6월까지 누계 수입물량이 103,553톤으로 전년 동기 누계 105,921톤에 육박하여 금년 수입물량은 1/4분기에 비하여 크게 늘어나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년 6월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17,216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한 추세를 나타내었다.

돼지고기 공급량을 예측하는 또 다른 변수인 사료 생산량을 보면 6월까지 누계 생산량으로 모든 사료는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여 2007년도 돼지 출하 물량의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다만 금년 8월과 9월의 출하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자돈 사료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월에는 2.1%, 6월에는 5.4% 증가하여 돼지 출하두수의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금년 상반기와는 반대로 하반기에는 수입물량의 증가와 출하물량의 증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재개 등으로 공급 측면에서는 과일 공급이 우려되는 형국이다.

반면 소비에서는 엄청난 폭우가 강원도를 휩쓸고 수해에 이재민을 늘어남에 따라 소비가 감소하여 전반적인 돼지고기 약세 시장이 예상된다.

한편 희망적인 것은 우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이런 저런 이유로 계속 늦어져 민족의 최대 명절이자 소비 시점인 추석 전에 재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나마 양돈 농가에 커다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돈 사료가 급증하는 것과 다르게 비육돈 사료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예상된다. 첫째는 4P등 질병

의 영향으로 자돈 단계에서의 폐사가 증가하며 자돈 육성율이 5~10% 감소한 농장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단계별 사양기준에 맞는 적정한 사료 교체를 할 경우 예상되는 자돈 스트레스 증가와 폐사를 우려한 농장에서 사료 교체 시기를 늦추어 비육돈 사료는 줄고 자돈 사료는 증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금년 8월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돼지고기 가격은 약세를 나타내면서 대략 3,900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돈**